

보도시점 2023. 8. 2.(수) 09:00 배포 2023. 8. 2.(수) 09:00

‘23.7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 25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생활물가는 29개월만에 1%대 기록(1.8%)하며 체감물가 개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는 3.3%로 둔화 흐름 지속

<‘23.7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총지수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23.6월 → 7월	2.7 → 2.3	3.5 → 3.3	4.1 → 3.9	2.3 → 1.8	3.7 → 1.3

‘23.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 상승(전월비 0.1%)하며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7월 물가둔화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로 역대 최대폭 하락($\Delta 25.9\%$)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4.7%, 15개월만에 최저치)도 줄어들고 있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집중호우 영향으로 전월대비는 상승(1.7%)하였지만, 전년동월보다는 소폭 하락($\Delta 0.5\%$)하였다.

구입빈도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8% 상승(전월비 0.0%)하며 ‘21.2월 이후 2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으로, 변동성 높은 품목을 제외한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도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2%)하며 15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반적인 물가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8, 9월에는 기상여건·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10월 이후 다시 안정흐름을 회복할 전망이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주요 품목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며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사무관 김정호 (044-215-2777)

별첨

'23.7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 (상세)

1. 주요 내용

① [소비자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전년동월비 2.3% 상승(전월비: 0.1%)

※ '21.6월 2.3% 이래 25개월만에 최저치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전년동월비	5.4	6.0	6.3	5.7	5.6	5.7	5.0	5.0	5.2	4.8	4.2	3.7	3.3	2.7	2.3
전월비	0.7	0.6	0.5	△0.1	0.3	0.3	△0.1	0.2	0.8	0.3	0.2	0.2	0.3	0.0	0.1

① (농축수산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전월비 4.7%)했으나 축산물(△1.6%)·수산물(△0.9%) 하락, 전년동월비 △0.5%(전월비 1.7%)

* 세부 품목별 전년동월비(% 6→7월) : (농산물)2.3→0.3 (축산물)△4.9→△4.1 (수산물)6.0→5.9

② (석유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나, 7월까지의 전월비 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며 전년동월비 △25.9%(전월비 △0.7%)

③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전년동월비 4.7% 상승. 15개월만에 4%대 상승폭 기록(전월비 0.3%)

품목별 상승률(%)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전기가스 수도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외식	외식 제외
전년동월비	2.7	0.2	0.2	△25.4	25.9	0.5	1.0	5.0	6.3	4.1
'23.6월 (기여도, %p)		0.0	0.1	△1.5	0.9	0.0	0.1	1.5	0.8	0.7
전월비	0.0	△0.1	△0.4	△4.0	2.2	△0.1	0.1	0.1	0.2	0.1
전년동월비	2.3	△0.5	0.0	△25.9	21.1	0.3	1.2	4.7	5.9	3.8
'23.7월 (기여도, %p)		0.0	0.0	△1.5	0.7	0.0	0.1	1.4	0.8	0.7
전월비	0.1	1.7	0.0	△0.7	△4.9	0.0	0.3	0.3	0.3	0.4

② [근원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2%)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3.4	3.9	3.9	4.0	4.1	4.2	4.3	4.1	4.1	4.0	4.0	4.0	3.9	3.5	3.3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4.1	4.4	4.5	4.4	4.5	4.8	4.8	4.8	5.0	4.8	4.8	4.6	4.3	4.1	3.9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로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9% 상승(전월비 △0.1%)

* 우리나라에서 활용 중인 근원물가로서, 전체 458개 품목 중 변동성이 가장 강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

③ [생활물가] 전년동월비 1.8% 상승(전월비 0.0%)하며 29개월만에 최저치

*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비, %, 6→7월): (식품) 4.7 → 4.1 (식품이외) 0.8 → 0.4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생활물가지수	6.7	7.4	7.9	6.8	6.5	6.5	5.5	5.7	6.1	5.5	4.4	3.7	3.2	2.3	1.8

④ [신선식품] 집중호우 및 계절성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3% 상승(전월비 4.4%)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전년동월비, % 6→7월): (신선채소)3.6→△5.3 (신선과실)2.2→5.2 (신선어개)6.2→6.2
(전 월 비, % 6→7월): (신선채소)△4.8→7.2 (신선과실)2.7→5.4 (신선어개)△0.4→△1.1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신선식품지수	2.5	5.4	13.0	14.9	12.8	11.4	0.8	1.1	2.4	3.6	7.3	3.1	3.5	3.7	1.3

2. 평가 및 대응

□ [평가] 소비자물가 둔화흐름이 이어지면서 7월에는 2%대 초반으로 하락

- 집중호우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동월보다 하락한 가운데 석유류가 큰 폭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도 둔화
- 체감지표인 생활물가(1.8%)가 29개월만에 1%대를 나타내고, 근원물가(OECD 기준)도 15개월만에 최저치인 3.3% 기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대 물가는 우리나라 포함 8개국*,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는 4개국**에 불과

* 코스타리카(△1.0%), 벨기에(1.6%), 스위스(1.8%), 룩셈부르크(2.0%), 스페인(2.1%), 덴마크(2.4%), 캐나다(2.8%)

** 중국(0.0%), 사우디(2.7%), 캐나다(2.8%)

□ [대응] 8-9월에는 기상여건·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상여건 및 주요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